

여수시,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속도

성토공사 등 토지 평탄화 완료 섬박람회 부행사장 조성 본격

전라남도 여수시가 농어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 중인 '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마치고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화정면 개도 간척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1단계 성토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부지(5만9596㎡)는 전체 사업

부지(15만7425㎡)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구역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7억원을 투입해 국도77호선 개설에 맞춰 선제적으로 농어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체 부지 15만7425㎡는 1단계(5만9596㎡)와 2단계(9만7829㎡)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부지에는 섬어촌문화센터, 마녀목공원, 주차장 등 영구 시설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활용될

섬캠핑장 부지가 포함된다.

시는 섬캠핑장 일원에 특산물 판매장과 푸드존을 조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1997년께 간척으로 매립됐으나, 염분 농도 문제 때문에 농경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

여수시는 민선 7기부터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2022년 3월 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년 12월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 변경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 방식도 단계별로 차별화했다. 1단계는 외부에서 성토용 토사를 반입했으며, 2단계는 국도77호선 화태~백야(2공구) 공사장의 토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박람회 이후 단지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분양 등 후속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도77호선 개통과 함께 접근성이 개선된 개도 간척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되면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돌산 진모지구의 주 행사장과 함께 세계박람회장과 개도, 금오도에 조성될 부 행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3곳의 부 행사장 가운데 학술연구행사 위주의 세계박람회장, 체험형 행사장인 금오도와는 달리 개도에는 섬박람회 이후에도 남겨질 영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국정기획위 방문…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요청

여수 5대 공약 연계 14건

전라남도 여수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핵심 현안 띄우기에 나섰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된 14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 부시장은 여수 출신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김경호 제주대 교수를 면담했으며, 같은 여수 출신인 ㄴ 경제2분과 황정아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철현·조계원 의원실도 방문해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했다.

건의된 주요 현안은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및 경쟁력 회복 지원 △여수국가산단 RE100 에너지 고속도로 및 해상풍력 단지 건설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및 컨벤션 특화도시 조성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거점 국제공항 승객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함께 건의됐다.

최정기 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수지역 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우리 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비전"이라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방치 선박 관리 TF팀 가동… 국가어항 정비

실태조사·행정대집행 등

전라남도 여수시가 '국가어항 방치 선박 관리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국가어항 내 장기 계류 또는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질 여수시가 관리하는 국동항, 돌산항, 남도항 등

6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방치 선박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TF팀은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섬발전지원과를 비롯한 관련 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방치 선박 실태조사, 위험 선박에 대한 계도 및 이동·철거 유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등 다각적인 관리·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TF팀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전라남도 여수시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 1.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며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 또는 재촌 비어업인으로,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어업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며, 재촌 비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어업·양식업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여수시청 수산경영과(국동 임시별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0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12일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 52명을 대상으로 전북 임실과 남원 일대를 방문해 문화·안전 체험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드림스타트 '문화·안전 체험' 실시

사례관리 아동·가족 52명 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드림스타트가 최근 관내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 52명을 대상으로 전북 임실과 남원 일대를 방문해 문화·안전 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

도119안전체험관, 남원우주항공천문대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했다.

이번 체험은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내용은 쌀 피자 만들기, 교통안전·지진 체험 등 종합 재난 체험, 항공기 안전 체험과 완강기 사용 등 위기 탈출 체험, 태양 관측 및 4D 영화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항공기 탈출 훈련과 압박등반 등 다양한 위기 탈출 체험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천문대에서 태양 흑점을 관측하고 4D 영화를 본 것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동티모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한다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동티모르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참가를 확정했다.

16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한 동티모르 대사관에서 안토니우 데 사 베네비데스 주한 동티모르 대사가 참가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티모르는 섬박람회 에서 자국의 섬 자원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동티모르의 날' 행사에 전통 문화 공연단과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동티모르는 투투알라, 아타우로 섬 등은 생물다양성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최근 생태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안토니우 데 사 베네비데스 주한 동티모르 대사는 "동티모르는 해양 자원이 풍부한 섬나라로 지속가능한 해양 보호에 힘써왔다"며 "섬박람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계와 나누고 국제 협력을 넓히는 계



지난 15일 김종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왼쪽)과 안토니우 데 사 베네비데스 주한 동티모르 대사가 동티모르 대사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참가를 결정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동티모르의 공식 참가는 섬박람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섬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섬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연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

도록 섬박람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30개국 유치를 목표로 현재까지 6개국의 참가를 확정했으며, 오는 7월 말 베트남 팜닌성과 참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